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8층 805호(만성동, 오케이타워1)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2025년 9월 2일(화) 제 3162호

조국혁신당 "우범기 전주시장 독단 멈춰야"

전주 케이블카 사업 강력 비판
"개발 집착, 도시 정체성 위협"
역사·경관 훼손 우려, 시민 부담
민주당에 정책 수정·제동 요구

조국혁신당 전북특별도당은 1일 논평을 내고 "우범기 전주시장의 시정은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시민과 이탈된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날 "전주가 위험해지고 있다. 도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시장이 오히려 그 뿌리를 흔들고 있다"고 전제한 뒤 "우범기 시장이 추진 중인 한옥마을 케이블카 사업은 전주라는 도시의 품격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개발 집착의 상징이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적 합의는 뒷전이고, 시정 철학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시민이 궁금한 것은 사업의 실현 여부가 아니라, 시장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특히 "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과 공공성,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3측면 모두에서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 용역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는 기준치 1.0을 간신히 넘겼고, 전국 곳곳의 케이블카 사업은 줄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는 대규모 투자는 결국 그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노선이 통과하는 기린봉과 동고사, 견훤왕궁터 일대는 전주의 역사와 경관이 응축된 공간이다. 여기에 송전지주와 정류장을 세우는 개발 방식은 전주의 얼굴에 상처를 내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반문했다.

조국당은 "주민설명회는 형식에 그쳤고, 밀어붙이기식 시정은 케이블카 사업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전주천의 버드나무를 시민 의견도 없이 베어내고 덕진공원 민간특례사업 역시 과도한 아파트 개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고삐를 다시 잡아야 할 책임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공천 책임을 진 정당이라면 시민을 대신해 제동을 걸고 방향을 바로잡는 정치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우범기 시장이 이끄는 전주는 지금 도시의 철학보다 시장의 막무가내 프로젝트가 앞서고 있는만큼 케이블카 사업을 당장 멈출 것"을 강력 촉구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민체전 고창서 12일 개막
사흘간 1만 명 '열전'

제62회 도민체육대회 12~14일
학생부·일반부 39개 종목 진행
안전·숙박 등 대회 준비 철저

도민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고창군 일원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관련기사 7면>

1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도민체육대회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세계유산도시 고창에서 뭉쳐라 전북의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고창군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도민체전은 검도와 게이트볼, 골프, 궁도, 농구, 당구, 롤러, 배구, 배드민턴, 수영, 씨름, 육상 등 총 39개(정식종목 37개 시범종목 2개) 종목 약 1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지며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그라운드골프와 야구 등 일부 종목은 사전경기로 치러진다.

도체육회는 고창군, 고창군체육회 등과 대회를 축제의 장으로 치르기위해 경기장 안전점검과 교통, 숙박 등 대회 준비상황을 챙겼다.

개회식은 오는 12일 오후7시 고창공설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데 개식통고를 시작으로 시군선수단 입장, 개회선언, 대회기 게양, 성화점화, 축하공연 등 순으로 진행된다.

폐회식은 14일 오후5시 고창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며 성적발표와 종합시상, 내년도 도민체전 개최지인 진안군으로 대회기가 전달될 예정이다.

도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전북도민들이 체육으로 하나되는 도민체육대회가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군 일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며 "각 시군을 대표해 출전하는 선수들은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정정당당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대회를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정철기자

금융위원회가 1일 전북에서 처음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자치도>

금융위원회 '찾아가는 지방 간담회' 전북서 첫 개최

복합지원·보험 상생협력 협약
금융·복지 원스톱 서비스 추진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협력 구축

금융위원회가 1일 전북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 지역주민의 금융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를 목표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 중인 전북에서 금융위원회의 첫 지방 순회 간담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전북자치도와 금융위 등은 '전북특별자치도-금융위원회 복합지원' 및 '소상공인 보험업권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강락현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대표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 전북은행·광주은행 등 금융기관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복합지원 협약으로 도는 금융과 복지를 연계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금융상담 서비스도 적극 추진한다.

보험업권 협약을 통해서는 3년간 20억 원 규모의 보험업권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신용보험, 상해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상품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금융위원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유치, 글로벌 금융기관 16개사 진출, 전국 최초 핀테크 육성지구 지정 등 하반기에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수립·제출해 금융중심지 지정을 금융위원회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소방관 심리상담사 턱없이 부족"

한병도 의원 "인력 부족" 지적
최근 5년 상담 건수 3만 건 급증
1관서 1상담사 배치 필요성 강조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일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등 심리상담을 원하는 소방관은 급증하고 있으나 상담사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한 상담 건수는 2020년 4만 8,026건에서 2024년 7만 9,453건으로 4년 새 3만 1,427건이나 급증했다. 지난해 말 상담사 수가 102명임을 감안하면 상담사 1인당 연간 약 779건의 상담을 소화한 셈이다.

소방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사 인력을 2020년 72명에서 2022년 88명, 2023년 102명, 올해 128명으로 증원했지만 소방관서 수(268개소)를 고려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 '1관서 1상담사'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관 마음 건강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를 겪는 소방공무원은 2020년 2,666명에서 2024년 4,375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우울증을 겪는 소방관(2,028명→3,937명)과 자살위험 소방관(2,301명→3,141명)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빠른 시일 내에 1소방관서당 1상담사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9월 2일 화요일

새만금 SOC사업 가속화, 일괄 예타면제 시급

16년간 12건 중 단1건만 예타 면제
기업 투자 연기·규모 축소 우려
"국정 필요사업" 면제 근거 충분

새만금 사업이 35년째 터덕이는 가운데 현 정부 임기 내 진척을 위해서는 핵심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SOC 사업이 개별 예타를 거치며 개발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새만금 관련 SOC 예타는 총 12건이 진행됐다. 이 중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1건(8,077억원)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타 면제를 받았고, 나머지 11건 총 11조 4,305억 원 규모의 사업은 모두 개별 예타를 통해 승인됐다.

문제는 예타 소요 기간이다.

지난 2010년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부터 2022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까지의 예타 진행 현황을 보면, 최장 40개월(새만금 수목원 조성)에서 최단 6개월(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까지 편차가 컸으며, 평균 18개월가량 소요됐다. 일부 사업은 2년 이상 예타에만 매달려야 했던 실정이다.

이같은 개발 지연은 기업 투자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SOC와 전력, 부지가 동시에 갖춰지지 않는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연기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우려로 이어진다. 각 인프라의 완공 시점이 제각각이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사업 환경 조성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의 일괄 예타 면제 필요성은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새만금 사업은 단순히 개별 사업들을 모아놓은 집합체가 아닌, 모든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통합형 개발사업으로 꼽힌다.

새만금 SOC들은 높은 상호 의존성을 갖는다. 도로가 건설돼도 항만이 없으면 물류 효율성이 떨어지고, 항만이 완공돼도 철도 연결이 지연되면 운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배수갑문과 매립사업 역시 다른 인프라와 연동돼야 전체 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 10항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 필요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역시 지난 7월 31일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조성 및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앞으로 예타를 받아야 할 사업은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1조 1,227억원) ▲새만금 내부간선도로(순환링) 잔여구간 건설(5,468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개발(2,444억원) ▲새만금 배수갑문 증설(2,600억원) 등 4개 사업, 총 2조 1,739억 원 규모다.

남북3축 도로는 새만금과 전북 외부를 연결하는 대동맥으로서 산업 입주와 물류의 핵심 축이며, 내부간선도로 잔여구간은 교통망의 완결성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필수적이다. 환경생태용지 2-2단계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반 인프라, 배수갑문은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으로 이어지는 핵심 기반 시설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SOC 사업은 일괄예타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새만금은 SOC가 먼저 갖춰져야 투자가 뒤따르는 선SOC 후투자 구조로, 동시 완성시 공사비 절감과 민간투자 촉발, 지역고용 창출 효과가 동반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새만금 사업 일괄 예타면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민주당 전북도당, 최광호 홍보소통국장 임명

전주시 비서실장 역임
이원택 체제서 교육·자격심사

최광호 국장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9월 1일자로 홍보소통국장에 최광호 전 전주시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최 국장은 도지사 비서실을 거쳐 전주시장 비서실장(민선 7기)을 역임하는 등 약 16년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 체제에서 교육연수위원장, 당원자격심사위원을 지냈다.

최 국장은 "당원과 도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홍보소통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 홍보소통국장은 군산제일고, 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민선 5기 전북도지사 의전비서관, 민선 7기 전주시장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자치도,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면역유지기간 고려 한달 앞당겨
소·염소 545천 마리 접종 대상
4주후 무작위 농가선정 항체확인

전북도는 지난 2017년도 이후 8년 간 유지해 온 구제역 청정지역 관리를 위해 9월 한달간 도내 소,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접종은 지난 3월 전남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실시한 상반기 일제접종 후 면역 유지 기간(6개월)을 고려해 당초 시기를 한달 앞당겨 추진하게 됐다.

접종 대상은 도내 소, 염소 10,556농가 545천 마리이며, 사육두수가 소 50두, 염소 300두 미만인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와 방역지원 및 염소 포획 전문인력 등을 동원하여 접종 지원을 하고, 업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단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임신말기로 분만을 앞둔 경우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개체는 일시적으로 접종 유예가 되며 추후 시군별 관리계획에 따라 추가 접종이 실시된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소 사육농가는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에 접종내역을 제출하고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정보가 정확히 입력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염소 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접종 상황을 기록관리함으로써 백신접종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접종 이행 여부와 항체형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후부터(10월 1 ~ 11월 7일) 무작위로 농가를 선정해 소, 염소의 백신 항체양성률을 확인한다.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백신을 재접종하고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도 실시된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올해 전남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듯이 상시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되는 상황인 만큼, 구제역 발생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올바르고 철저한 백신접종으로 높은 항체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 정확한 접종과 동시에 빈틈없는 농장 차단방역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최대 15% 상향

발행 1천억 늘려 1조 7천억 공급
면 하나로마트·농자재소 사용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은 10% 할인율로 판매돼 도민들의 생활비 절감과 소상공인 매출 안정에 기여해왔다. 여기에 더해 전북도는 9월부터 할인율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할인율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전주·군산·익산·완주 등 일반지역은 13%, 나머지 10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5%까지 상향된다. 전북도는 소비 기반이 취약한 농산어촌 지역에 더 큰 혜택을 줘 소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의 제2차 추경에 맞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된다. 당초 올해 전북도의 발행 규모는 1조 5,870억 원이었으나, 추가 발행 수요가 반영되면서 약 1,000억 원이 늘어난 1조 6,952억 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도민들은 할인 혜택을 더욱 넉넉하게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상품권 사용처도 한층 넓어진다.

전북도는 지난 7월부터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소를 사용처로 추가했다. 기존에는 유사 가맹점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매장이거나 신선식품 구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도내 189개 하나로마트 중 105개, 농자재판매소 55개가 새로 등록돼 농촌과 산간 주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할인율 상향과 발행 규모 확대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천년명가협의회 출범…지역 '터줏대감' 소상공인 연대 강화

완주 오성한옥마을에서 발대식
30년 이상 업력 업체 58곳 참여
정기 네트워킹·공동 홍보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완주 오성한옥마을에서 전북천년명가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윤여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2019년에 1호로 지정된 성미당 대표를 비롯해 올해까지 선정된 전북천년명가 대표와 경영 승계를 준비 중인 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해 협의회 출범을 축하했다.

전북천년명가 사업은 도내에서 30년 이상 한 분야를 지켜온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58개 업체를 지정했다. 이들은 음식, 제조, 공예, 도소매,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지역의 경제 중심축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전북도는 천년명가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 경영지원금, 인증 현판, 마케팅 지원, 특례보증 등 다방면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명가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를 신설해 정기적인 네트워킹과 공동 홍보, 정책 제안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발대식에 참석한 대표들과 직접 소통하며 전북천년명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대표들은 ▲전북천년명가 브랜드 인지도 강화 ▲관광자원과의 연계 ▲전북천년명가간 네트워킹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9월 1일 완주 오성한옥마을에서 전북천년명가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

특히 참석자들은 "전북천년명가라는 브랜드 가치 확산과 상생방안을 건의했다. 이름이 도내를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안호영 의원,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 발의

안호영 의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퇴직연금공단 설립(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근로자 노후보장하기 위해) ▲운영 및 관리(제도 관리·감독, 사업자 관리, 중소기업 기금 운용) ▲연구 및 국제협력(조사·연구, 기금운용 연구, 국제협력 기능) ▲공단 운영 규정(임직원 임면, 겸직 제한, 이사회 운영, 회계 관리 등) ▲정부 감독(고용노동부 장관의 공단 감독) 등으로 되어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전주 옛 파출소 건물, 청년 자활 돕는 공간으로 탈바꿈

청년자활사업장 'Root 379' 자활 지원 위한 판매공간 운영

전주시는 1일 유휴 국유건물인 옛 금암동 문화파출소에서 새로운 청년자활사업장인 'Root 379'의 개소식을 가졌다 <사진=전주시>

전주시는 1일 유휴 국유건물인 옛 금암동 문화파출소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시의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이사, 자활센터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청년자활사업장인 'Root 379'의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사업 경과보고와 개소 기념 커팅식에 이어 'Root 379' 자활사업장을 둘러봤다.

'Root 379'는 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자활지원협회 전북지부가 힘을 모아 마련한 공간이다.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 'Root 379'의 건물 1층에는 청년이 운영하는 카페와 자활생산품 판매장이 갖춰졌으며, 2층은 청년들이 디저트를 개발·생산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1층 카페에서는 개소를 기념해 9월 한 달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열기를 높이기 위한 '하계올림픽 유치 응원 특별 이벤트'도 진행된다.

공간 운영은 만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립 지원을 통해 개인 역량 강화와 공동체성 회복을 목표로 운영되는 전주지역자활센터의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맡는다.

진교훈 복지환경국장은 "'Root 379'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자립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유휴 국유건물을 발굴해 새로운 자활 일자리 창출의 희망터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지역 대학, 외국인 유학생 권익 보호·정주 지원 '맞손'

행정·지역·법률지원단체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가 지역 대학들과 외국인 유학생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거주를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는 1일 지역 대학 및 법률지원단체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지역 정주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우병훈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조덕현 전주기전대학 부총장, 강신무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협약 참여기관들은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유관기관 자원 연계 △체류·비자·주거 등 제도적 정보제공 및 연계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교육 및 상담 △문화·체육 등 지역사회 통합 행사 개최 등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들은 교육기관으로서 유학생 교육과 생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법률지원단체는 법률상담과 법률 이해 교육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 운영, 사법통역사 양성 등 전문적 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기관들은 이달 중 협약기관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10월부터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생활에 안정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전주가 글로벌 인재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포용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AI·가상융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전주 시민 누구나 참여 8일까지 전자우편 제출 최우수상 상금 300만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전, 이하 진흥원)은 '2025 덕진권역 활성화를 위한 가상융합 청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덕진권역 활성화와 지역 가상경제 촉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진행된다.

진흥원은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의 인프라와 멘토링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수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모 주제는 △덕진권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가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 아이디어다.

참가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내 거주하는 대학생과 졸업생, 예비 창업자, 일반인 등 누구나 가능하며, 진흥원 누리집(www.jica.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첨부 양식을 확인 후 오는 8일까지 전자우편(osyth@jic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은 최우수상(상금 300만원)을 포함해 총 17점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으로, 시상식은 오는 12월에 진행된다.

시상식에서는 수상작 발표와 함께 향후 사업화 계획도 공유될 예정이다.

허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가 가진 가상융합과 AI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의 창의적 인재와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겠다"면서 "이번 공모전이 덕진권역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전북이 가상융합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새만금개발청, 2026년 예산안 2133억원 편성

2025년 대비 (73.9%) 증가 RE100 산단 조성 등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 이하 새만금청)은 2026년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73.9% (907억원) 증가한 2133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 증액으로는 일반회계 '25년 1127억원에서 '26안에는 2013억원(886억원, 78.5% 증), 기후대응기금에 '25년 99억원에서 '26안 120억원(21억원, 22.0% 증) 등이다.

특히 2026년 예산안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알이백(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사회기반시설(SOC) 조기 완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정('22.7월)해 추진 중인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25) 99억원→('26안) 120억원'가 내년에 완공되어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25)65억원→('26안)44억원'은 증가하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폐소를 변전소로 변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 2·3권역 개발의 마중물이 될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25)402억원→('26안)1630억원'은 2030년에 개통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사비를 편성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마지막 축인 '새만금 남북3축도로 건설사업(규모)21.6km,(기간)7년,(총사업비)1조3942억원'은 조기 착공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9개 부처가 편성한 새만금 지역 전체 예산안은 1조649억원으로 지난해(7963억원)보다 2686억원, 33.7%가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청을 비롯한 새만금 사업지역의 전반적인 예산 투입 규모가 대폭 증가하여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섰다"며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허브로 도약시키고 국민들이 새만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REal 대한민국, RE100 새만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하고 민생경제 살리기 동참하세요"

온라인 가입자 대상 모바일상품권 5만원 지급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노란우산 챙기고, 내수경제 살리고' 프로모션을 9월에도 이어간다.

전국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모션은 지난 7월부터 시작해 6개월간 진행된다.

소기업 대표 및 소상공인이 온라인으로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사랑상품권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행하는 모바일 소비쿠폰으로, 전국 약 193만 개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쿠폰은 비플페이 어플에서 PIN 번호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은 제로페이맵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

8월 말 기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한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자는 1만47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 상승했다.

노란우산은 2007년 제도 출범 후 누적 가입자 수 314만명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갑작스러운 폐업과 노후를 대비할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혜택과 연 복리 이자로 목돈 마련에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운영은 물론 노후 대비, 사업 재기 등의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자원순환 주간 '자원순환 솔선수범'

자원순환 캠페인 진행

전주시 직원들이 생활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자원순환에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시는 '제17회 자원순환의 날'(9월 6일)을 기념해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5일까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 참여 중심의 기존 캠페인과 달리 전주시 공무원들이 일상에서 자원순환 문화 정착에 기여함으로써 시민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시 청소직원과 직원들은 자원순환 주간 동안 △1회용품 사용 자제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을 홍보한다.

또 사무실과 가정에서 잠자고 있는 종이팩과 폐건전지를 가져오면 물품으로 교환해 주는 '재활용 물품 교환사업'도 진행한다.

재활용품 물품 교환 사업은 일상에서 버리면 쓰레기지만, 분리 배출하면 고품질 자원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 문화 정착에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오는 9월 5일까지 현대해상과 완산구청, 덕진구청 등을 순회하며 캠페인 및 재활용품 물품교환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공직자들이 먼저 자원순환 실천에 앞장서야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내부 구성원의 인식 전환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새활용센터,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

6일 새활용 관련 체험·전시

전주시는 오는 6일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에서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하는 '제로에서 다시, 인생 2회차'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버려진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시민들이 직접 새활용(업사이클링)을 체험하며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재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용기 있는 연고(자운고 연고를 만들어 다 쓴 화장품 용기에 담아 가기) △제로웨이스트 고체치약 만들기 △입주기업 오픈 스튜디오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시민이 만든 수선 작품 전시와 더불어 '수선 뽐내기 콘테스트' 우수작 선정을 위한 시민 투표 및 시상식도 진행된다.

특히 입주기업 오픈 스튜디오의 경우 센터에 입주한 6개 새활용 기업이 각자의 새활용 창작활동을 소개한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 여름철 집중호우 선재대응 도민 안전확보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교통관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전북경찰은 침수취약구간에 대한 점검 및 실제 도로 침수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FTX)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 태세를 갖췄었다.

특히 지난 7. 16. ~ 7. 19. 4일간 456.9mm의 강수량을 기록한 순창에서는 도로에서 빗물이 역류되어 도로가 침수되는 등 도내 곳곳에서 접수된 도로침수, 신호기 고장, 벗길 교통사고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며 교통혼잡과 2차 사고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전북경찰의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교통관리'에는 도로관리청과 비상연락망 재정비 등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됐다.

전북경찰은 앞으로 지하차도 등 침수 위험이 큰 곳은 '관리카드'를 만들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중요성 강조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별 홍보 활동에 나섰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가 신속히 진입하고 원활하게 구조·진압 활동을 펼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이 부과되며, 주차뿐 아니라 진입로에 물건을 두거나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및 불법 사용은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엄격히 금지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박덕규 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관의 편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나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통로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반드시 소방차 전용구역은 비워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9월 2일 화요일

중기중앙회, K-中企 새로운 수출길 연다

한국중소기업 제품 미국진출 지원 앞장 K-뷰티 등 경쟁력 확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 회장은 K-중소기업 수출 확대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K-中企 새로운 수출길을 계획하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내년 미국 현지에서 '한국상품전시회'를 개최, K-중소기업 수출을 확대시켜 한국 중소기업 제품 미국시장진출 지원에 앞장설 방침이다고 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현지시각 29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이하 미주한상총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단체는 협약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 미국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내년 하반기 CES 등 유명 전시회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가스 등에서 한국상품전시회(K-Goods Fair)를 개최해 참가기업 모집·홍보·바이어 섭외 등 전시회 준비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두 단체가 지난 '25년 4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에 따른 K-뷰티, K-푸드의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확인하고,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의 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황병구 미주한상총연 회장, 양 단체 주요 임원, 미주한상총연 78개 지역상공회의소 대표 등 재외동포경제인 1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중소기업 미국진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이번 업무협약 이후 미국 대표 동포기업 △한미은행 △허브천하 △LBBS(로펌) △가든그로브市 등 주요 미국 한인 네트워크들과 함께 이번 달 중 '미국진출설명회(9.19)'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9월 24일 전국의 중소기업 지도자들이 모이는 제주 리더스 포럼 '미국진출전략세미나'을 통해 실질적인 미국진출 지원으로 이끌 전망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K-중소기업 수출 확대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K-中企 새로운 수출길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2023년 애너하임과 2025년 애틀랜타에서 두 차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개최하며 한국 상품의 저력과 미국 시장에서의 인기를 확인했다"며 "미국은 한국 중소기업 수출이 매년 증가하는 중요한 시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한국상품전시회가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미주 재외동포 경제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난달 29일 신규직원 23명을 대상으로 '마케팅 레벨업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지역사회 상생 활동

'피어나다 키트' 제작·지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지난 8월 29일 신규직원 23명을 대상으로 '마케팅 레벨업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교육은 금융사고 예방교육과 현장 중심의 마케팅 실무과정으로 진행됐다.

또 신규직원들이 직접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위한 600만원 상당의'피어나다 키트'를 제작해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해당 키트에는 여성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위생용품과 기초화장품 꾸러미, 신규직원들의 희망메세지가 담겼으며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전북관내 도움이 필요한 여성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성훈 본부장은"신규직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함께 실천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농협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영케어러와 다문화가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김영태 기자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제한…연매출 30억 이하로

타부처 공통 기준 적용 시장 혼선 방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노용석 차관은 1일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 이하 전상연)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 차관은 이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를 위해 중기부와 전상연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 방안이 마련됐다.

여기에 연매출 금액 30억원 설정은 타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 혼선 방지와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련한 개편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다.

노용석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영세 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연 이충환 회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은 이달 1일 'JB 달달이 쏙 예·적금'을 출시했다. <사진=전북은행>

전북은행, 'JB 달달이 쏙 예·적금' 출시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

전북은행은 1일부터 신상품으로 'JB 달달이 쏙 예·적금'을 출시했다.

'JB 달달이 쏙 예·적금'은 월이자 지급 정기예금과 자유적립 정기적금을 연계한 상품이다.

'JB 달달이 쏙 예·적금' 특징으로는 예금 월이자가 적금 계좌로 자동 이체되어 월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다양한 우대금리·이벤트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생활 도움을 준다.

특히 'JB 달달이 쏙 예금'은 3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한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이다.

상품 금리는 6개월 최고 연 2.75%(기본 연 2.45%), 12개월 최고 연 2.65%(기본 연 2.35%)며, 마케팅 동의 시 0.1% 우대이율과 가입 직전 6개월 동안 원화정기예금 보유 이력이 없는 첫 거래 고객(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에 한해 0.2%의 이벤트 우대이율이 제공된다.

이벤트 판매한도는 3000억원이다.

이와 함께 'JB 달달이 쏙 적금'은 초회불입금 1천원 이상 50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이 출시됐다.

이 상품은 6개월 최고 연 3.20%(기본 연 2.50%), 12개월 최고 연 3.10%(기본 연 2.40%) 금리다. /김영태 기자

전평신협, 신협사회공헌재단에 5백만원 기부

재단누적기부금 8,580,000원 달성

전평신협(이사장 김병학)은 지난달 29일 전평신협 본점에서 신협사회공헌재단에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신협중앙회 강연수 전북지역본부장, 전평신협 김병학 이사장, 양 기관 임직원 6명이 참여했다.

전평신협은 지난 '17년부터 꾸준히 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해 왔으며, '23년에는 전북신협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추진한 '1 신협 1 아동 결연사업'에 동참해 정기후원을 한 바도 있다.

전평신협 이번 기부금 500만 원 전달로 전평신협은 재단누적기부금 8,580,000원을 달성하게 된다.

특히 지역사회에 대한 전평신협 애정과 관심은 덕진구·완주군 내 단위 신협 중에서도 손에 꼽는다.

더불어 위기가정 및 복지 사각지대 지원 위한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에 4회째 동참하고 있다.

아울러 전평신협은 아동·청소년 가정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 '신협 행복한 집 프로젝트'를 전주시·완주군 일대에서 3년째 실천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전평신협은 올해 4월 '신협 어부바멘토링 프로그램' 부문 '우수활동 신협'으로 선정돼 중앙회장표창을 수상했다.

김병학 이사장은 "신협의 이념적 가치가 전국으로 퍼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며 "전평신협은 신협사회공헌재단과 함께 행복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평신협은 지난달 29일 전평신협 본점에서 신협사회공헌재단에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 21일까지 국민제안 공모전 개최

누리집·모바일앱 응모 서비스 혁신 기대

보다 더 나은 연금 서비스 제공 위한 국민연금이 다양한 제안 공모전에 나선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 1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제안하GO! 바꾸GO!' 국민제안 공모 개최 계획을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운영과 서비스 향상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제안 주제는 △국민연금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개선 방안 △AI, 빅데이터 등 IT 기술을 활용한 고객서비스 개선 방안 △국민연금 관련 개선 아이디어 등 세 가지다.

응모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이용하면 된다.

'제안하GO! 바꾸GO!' 국민제안 공모 심사는 효과성·창의성·실용성·노력도 바탕으로 심사 기준에 적용될 전망이다.

공모전 당선 우수상 수상자 3명과 아이디어상 수상자 10명에게는 각각 20만원과 5만원 상당 경품이 지급된다.

여기에 국민연금은, 행운상 5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 경품을 공모 응모자들에게 지급하며 공모전 참여에 기쁨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모전 결과는 오는 10월 말 공단 누리집에 게시되며 각 수상자들에게는 개별 통보한다.

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연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 제안 등이 다시 한번 제도 운영과 서비스 혁신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김제완주축협 '한우경영대학' 수료식 성료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은 지난달 28일 제2기 한우경영대학 수료식을 성황리에 성료했다고 1일 밝혔다.

'제2기 한우경영대학'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전문축산인 양성에 주력했다.

교육 과정에는 한우 사육 조합원 30명이 참여했다.

'제2기 한우경영대학'은 약 5개월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총 22명이 호성동 소재 한우명품관 회의실에서 수료의 영예를 안았다.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창수 조합장은 수료식에서 "이번 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이 현장에서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축협에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조합원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道, 고창 연경전자 방문…기업애로 '원킬 솔루션'

전북특별자치도는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1일 고창군에 위치한 연경전자㈜를 방문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 및 전문가들과 함께 즉각적인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도와 고창군,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해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시스템을 가동한 사례로, 전북도가 추진 중인 '기업애로 원킬솔루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연경전자가 겪고 있는 △필수 기술인력 확보, △직원 숙소 지원, △물류비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애로사항이 공유되었으며, 도와 고창군, 유관기관은 협업을 통해 즉시 지원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중장기적 과제는 제도 개선 및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도정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기업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지사는 연경전자가 취약계층 고용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현장 대응 중심의 '기업애로 원킬솔루션'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 도내 기업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마지막 실전 연습' 9월 모평, 3일 시행

전북 수험생 1만7,547명 응시 예정 107개 고1·2 연합학력평가도 같은 날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능 전 마지막 실전 연습인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오는 3일 시행된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9월 모의평가에는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총 1만7,547명이 응시한다. 재학생은 1만5,684명으로 전년도 대비 593명 증가했으며, 졸업생 등은 1,863명으로 185명 감소했다.

9월 모의평가는 시험범위, 응시자 구성과 규모, 출제경향이 수능과 가장 유사해 수험생 자신의 학업 수준과 위치를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마지막 전국 단위 시험이다.

시험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 중 한국사 영역은 필수 영역으로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나머지 영역은 일부 또는 전부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되고, 사회·과학탐구영역은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치러진다.

모의평가 문제 및 정답은 매 교시 종료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EBSi 누리집에서 공개된다.

평가 결과는 9월 30일 발표되며, 개인별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이 기재된다.

절대평가 방식의 영어 및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등급만 기재되며,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같은 날 실시되는 9월 고1,2 전국연합학력평가에는 도내 107개 고등학교 1학년 1만4,691명과 2학년 1만4,854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9월 모의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마지막 모의평가로 수능 출제경향과 문항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수험생들은 자신의 학습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수시·정시 입시 전략을 최종 보완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기록관리학과, 인문학 캡스톤디자인 '주목'

전북대-베트남 반히엔대 공동 추진 인문학적 접근 확장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가 베트남 주요 대학과 함께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글로벌 기록관리 역량과 국제 협력 능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적으로 이공계 중심으로 운영돼 온 캡스톤디자인을 인문사회계 분야로 확장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대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현지에서 반히엔(Van Hien 대)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함께 진행됐다.

양국 학생들은 공동 PBL(Problem-Based Learning)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설계해 단순 학문 교류를 넘어 지역문화 발굴과 기록화 작업까지 수행했다.

특히 지난 8월 15일에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한류 페스티벌'이 열려 K-컬처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이어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전북대 기록관리대학원생 11명이 조장을 맡고, 반히엔대 한국어학과 학부생 43명이 조원으로 참여해 총 54명이 '마을의 기억을 담다'를 주제로 로컬 스토리텔링 캡스톤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전북대 기록관리학과 학과주임 오효정 교수는 "캡스톤디자인은 주로 이공계에서만 활성화돼 왔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컬 주제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기록관리 교육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모토 아래 두 나라 지역문화의 기억을 함께 발굴하고 기록화한 것은 인문사회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군산대, 글로벌 'K-문화 전문가' 집중 양성

한국어교육 전문가 등 진출

국립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시대 변화에 발맞춘 글로벌 인재 양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1일 국립군산대 국어국문학과에 따르면 'K-문화 전문가 양성'을 학과 교육 비전으로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세부적으로 전공지식의 실용화, 전공역량의 실무화를 목표로 스토리텔링 전문교과, 영상 문학 및 웹콘텐츠 전문교과, 한국어교육 및 언어 전문교과, 글쓰기 및 인문학 전문교과도 운영 중이다.

특히 글로벌 문화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군산대 국어국문학과는 실용 융합 교과와 현장실무 프로그램을 역동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시선을 확장하기 위해 '해외 탐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무 감각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웹소설·웹툰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과 더불어 출판 전문가로서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부터 편집까지 전 과정을 학생들이 담당하는 '출판 프로젝트'도 매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세계화·다문화 시대에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발맞춰 '한국어교육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운영하는 등 한국어교육 전문가 양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실제 졸업생 다수는 현재 '한국어교육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최성민 기자

전북 8개교·100명, 상업경진대회 참가

상업계열 실무역량 경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늘부터 4일까지 경북 일원에서 열리는 '제15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 도내 8개교 100여 명이 참가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상업계 특성화고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하며 전북 직업교육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올해 대회는 더케이호텔 경주를 비롯해 경주정보고, 경주여자정보고,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에서 개최되며, 개회식은 2일 오후 4시다.

전북에서는 강호항공고, 군산여상고, 글로벌학산고, 덕암정보고, 완산여고, 원광보건고, 전주상업정보고, 진경여고가 참가한다.

대회는 △회계실무 △창업실무 △사무행정 △전자상거래실무 △비즈니스영어 △ERP △금융실무 △호텔식음료서비스실무(조주) △세무실무 △취업설계프레젠테이션 등 11개 경진 종목과 △경제골든벨 △동아리콘테스트 등 4개 경연 종목, 총 15개 종목으로 치러진다.

전북교육청은 전국대회 출전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교별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심화캠프를 운영하는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대회는 학생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고 전북 직업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장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전국무대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학교, 개강 맞아 학생 환영행사 가져

2학기 응원 3천명에 간식 전달

국립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시대 변화에 발맞춘 글로벌 인재 양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1일 국립군산대 국어국문학과에 따르면 'K-문화 전문가 양성'을 학과 교육 비전으로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세부적으로 전공지식의 실용화, 전공역량의 실무화를 목표로 스토리텔링 전문교과, 영상 문학 및 웹콘텐츠 전문교과, 한국어교육 및 언어 전문교과, 글쓰기 및 인문학 전문교과도 운영 중이다.

특히 글로벌 문화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군산대 국어국문학과는 실용 융합 교과와 현장실무 프로그램을 역동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시선을 확장하기 위해 '해외 탐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무 감각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웹소설·웹툰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과 더불어 출판 전문가로서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부터 편집까지 전 과정을 학생들이 담당하는 '출판 프로젝트'도 매년 진행된다.

전공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을 위한 학교 밖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화·다문화 시대에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발맞춰 '한국어교육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운영하는 등 한국어교육 전문가 양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실제 졸업생 다수는 현재 '한국어교육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최성민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9월 2일 화요일

정읍시, 38개 분야·92개 직종 명장 후보자 22일까지 접수

정읍시가 평생을 산업 현장에서 헌신해 온 숙련기술인을 발굴·선정하기 위해 '2025 정읍시 명장' 후보자를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22일까지다.

정읍시 명장은 대한민국 명장 선정 직종을 준용해 38개 분야 92개 직종에서 직종별 1명 이내로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명장에게는 인증서와 인증명패가 수여되며, 연구활동비 300만 원을 2년간 지원받는다.

신청 자격은 동일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인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정읍시 읍·면·동장이나 관련 단체·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과 심사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정읍시 명장 선정이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산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 공식 운영

창의놀이공간 등 7개 테마 공간 조성 소통·유대 강화 기대

정읍시가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를 1일 공식 개장했다. <사진=정읍시>

정읍시가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를 1일 공식 개장했다.

시는 지난 7~8월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며 공간의 완성도를 높였다. 그 결과 아이들이 안전하면서도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환경과, 부모들이 안심하고 지켜볼 수 있는 체험형 놀이공간으로 조성됐다.

개장식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려 400여 명의 시민과 어린이들이 함께했다.

현장에서는 풍선공연과 댄스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져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다.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참여형 놀이공간이다.

약 1만9000㎡ 규모의 넓은 부지 위에 △유아놀이터 △거미줄놀이터 △단풍나무놀이터 △모래놀이터 △골목길놀이터 등 7개의 테마 공간이 조성됐다.

각 공간은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놀이하며 창의성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는 기적의 놀이터를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는 오늘의 개장은 정읍시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과 맞닿아 있다"며 "놀이터가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현실이 되고, 부모와 가족 모두가 행복을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홀로그램 페스티벌' 준비 박차

엑스포 등 추진 현황 논의

익산시가 홀로그램 산업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를 위한 행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4회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중간보고회와 '2025 홀로그램 엑스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해 김재천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산업과장, 최대규 전북디지털융합센터장, 김성규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장 등 관계기관 인사들이 참석해 행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행사 전반의 프로그램 구성과 안전관리 대책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은 오는 18~21일, 26~28일까지 총 7일간 익산교도소 세트장에서 열린다.

'미스터리연구소 - 끝나지 않은 실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미스터리 연구소 배경의 홀로그램 공포체험을 비롯해 블러드문댄스, 코스트런웨이 등 무대 공연과 호러 코스프레 대회, 이색 체험형 콘텐츠 부스 등이 운영돼 시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 홀로그램 엑스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준비 사항에 대한 협의 등 사전 작업도 이뤄졌다.

홀로그램 엑스포는 오는 11월 20~22일 3일간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두 행사는 그간 익산시가 추진해 온 홀로그램 산업 육성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좋은 기회"라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 '이리와 포차 축제' 5~6일 남부시장 주차장 일원 개최

전통시장과 포차 감성이 어우러진 세 번째 '이리와 포차 축제'가 한층 풍성한 먹거리와 공연으로 돌아온다.

익산시는 '제3회 이리와 포차 축제'가 오는 5~6일 익산 남부시장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다고 1일 밝혔다.

익산시와 구시장 상인회가 주관하고 남부시장 상인회가 협력하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대표 축제로 자리 잡으며 해마다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행사장에는 후라이드 치킨부터 홍어회무침, 김치부침개, 제육볶음, 새우튀김 등 약 40종의 푸짐한 포차 메뉴가 준비된다.

또한 지역 기업 하이트진로와 협업해 시원한 주류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시민 노래자랑 △댄스 배틀 등으로 이어지는 무대 공연이 이틀 동안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특히, 지역화폐 '다이로움 카드'로 결제 시 10% 추가 적립 혜택이 제공돼 최대 23% 할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시는 참가 판매자를 대상으로 사전 위생·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유근우 구시장 상인회장은 "지난해 축제의 뜨거운 반응을 바탕으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구성으로 준비했다"며 "전통시장만의 정겨운 매력과 흥겨움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 장애인트라이애슬론 훈련지 '부상'

전국 국가대표 전지훈련 국제경기장 등 최적 인프라

익산시가 장애인 스포츠의 새로운 거점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1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8월 18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47일간 2025 장애인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하계 전지훈련이 익산국제철인3종경기장과 시일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훈련은 대한장애인트라이애슬론연맹이 주최·주관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복권위원회가 후원한다.

특히 올해 초 연맹이 익산시를 거점으로 삼은 이후 진행되는 첫 공식 전지훈련으로, 익산이 보유한 국제철인3종경기장과 반다비 체육센터 등 우수한 장애인 스포츠 인프라가 훈련지 선정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

훈련에는 2024년부터 국가대표로 활약 중인 김황태 선수가 참여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소속인 그는 2000년 고압선 감전 사고로 양팔을 잃은 뒤 좌절하지 않고 2002년부터 마라톤에 뛰어들며 장애인 스포츠에 헌신해 온 주인공이다. 그의 투지와 도전 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올해 새롭게 국가대표로 선발된 김진홍 선수(경남장애인체육회 소속)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는 2008년 조선소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으나, 긴 재활 과정을 거쳐 2019년 트라이애슬론에 입문했고, 끊임없는 도전 끝에 태극마크를 달았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장애인트라이애슬론은 한계를 넘어서는 강한 의지와 도전 정신이 필요한 종목"이라며 "익산이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최적의 훈련지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지원 강화

정읍시가 멧돼지, 고라니, 철새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상금 지원과 예방사업, 포획활동을 다각도로 추진하며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을 돕고 있다.

시는 올해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1억원을 편성해 야생동물 피해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농가가 신청하면 현지 조사를 거쳐 작물별 소득액과 실경작면적, 피해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80%를 보상한다. 다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제외되며, 지원액은 최대 500만원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된다.

예방 차원에서도 철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철제형과 태양광형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는 올해 2억 4000만원이 투입됐으며, 현재 55농가가 신청해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해 멧돼지와 고라니를 포함해 총 8200마리를 포획했다. 이를 통해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보상·예방·포획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특별 야간영치 단속

단속 사각지대 해소

군산시는 고질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 야간영치 단속을 실시했다고 9월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 주간 단속을 피해 운행하는 상습·고질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특히 시는 고질 체납 차량 현황 분석을 통해 위치를 사전에 파악한 뒤, 주거지 인근 주차장 및 사업장 주변 차량 밀집 지역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단속 기간 동안 자동차세 6건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 차량 포함 총 19대를 적발했다.

이 중 10대의 차량 소유주로부터 체납액 1,688만 7천 원 중 831만 6천 원을 현장 징수했다. 또한 9대는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게는 영치 예고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이외에도 시는 영치 후 장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후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세를 충당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추석맞이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연말정산 세액공제 답례품 등 혜택 풍성

군산시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군산시에 고향사랑기부하고, 14만원 혜택받고 쇼핑하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되며, 군산시 주소가 아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군산시 지정기부사업인 '다자녀가구 차량 무료 렌탈 지원사업'에 10만 원 이상 기부를 하면 된다.

시는 1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올리브영 1만 원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올리브영 상품권은 기부가 증가하고 있는 젊은 층(20~40대)과 선물로도 인기가 많다"라면서 "세액공제와 답례품에 기부 감사의 뜻으로 지급하는 상품권까지 다양한 혜택이 있는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시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함께 군산만의 특색있는 답례품도 널리 알려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는 현 주소지가 군산이 아닌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이다.

기부액은 연간 2천만 원까지로 고향사랑e음 또는 KB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은행 앱을 통해 기부하면 된다.

10만 원까지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분은 16.5%)된다.

또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현재 군산시 답례품은 쌀·단팥빵·박대·꽃게장·젓갈 등 23개 품목의 특산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부금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공중·식품위생영업자 역량강화 워크숍 성료

군산시는 관내 공중·식품위생업소 영업자의 서비스 정신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1일 군산시 어린이공연장에서 실시했다.

2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은 빠르게 변하는 서비스 환경에서 소상공인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시는 이번 과정에서 △공중·식품 안전과 위생 △친절서비스 △경영 노하우 △사회관계망(SNS) 마케팅 교육을 통한 홍보전략 △안정적인 경영과 재정관리 방법을 위한 생애 설계 재무 교육까지 폭넓은 정보를 소개해 참여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딱딱한 교육 속에서 잠시나마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음악공연도 제공했다.

참가한 영업자들은 "요즘 손님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SNS를 통한 홍보가 매우 중요한데, 오늘 SNS 마케팅 홍보전략과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을 배울 수 있어 영업에 큰 도움이 될 거 같다"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시설개선 본격화

특별교부세 등 총 11억 투입 268㎡ 증축 연내 준공 목표

정읍시가 북부권 어르신들의 여가와 복지 향상을 위해 북부노인복지관 시설개선에 본격 나섰다.

시는 특별교부세 4억원을 포함한 총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협소했던 경로식당과 프로그램실 증축 공사를 추진한다. 연면적 268㎡ 규모로 증축되는 이번 사업은 사전 절차를 모두 마치고 8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연내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시는 복지관 위생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시비 1억 4000만원을 투입, 외부 화장실을 새로 증축해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학수 시장은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여가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북부노인복지관은 2009년 개관 이후 신태인, 이평, 감곡, 태인, 정우 등 정읍 북부권 5개 읍·면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여가활동 환경을 제공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정읍=김정인 기자

오감만족 축제로 만나는 '익산 고구마' 6~7일 삼기농협 일원 개최

익산시는 '제1회 2025 익산 고구마(순) 축제'가 오는 6~7일 이틀간, 삼기농협 로컬푸드 하나로마트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1일 밝혔다.

익산은 국내 고구마 종순 유통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전국 4대 고구마 주산지로, 지역 특산물인 고구마와 고구마순을 널리 알리고자 축제를 마련했다.

'고구마의 재발견'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고구마와 고구마순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체험형 지역 축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통 방식으로 담그는 확독(돌절구) 고구마순 김치 체험 △모두가 함께 비비는 고구마순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 △스피드 대결 고구마순 껍질 까기 △흙 속 보물을 찾는 보석 고구마캐기 체험 등이 준비돼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육개장 등 고구마와 고구마순을 활용한 7~8가지의 먹거리도 준비돼 세대간 공감의 장을 제공한다.

고구마와 순을 활용한 전통 먹거리는 중장년층에게는 고향의 맛과 추억을,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한 재료가 어우러진 새로운 미식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고구마와 고구마순을 활용한 산업화 가능성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창군, '제62회 도민체전' 본격시작

이번주 그라운드골프 등 사전경기 7개 치러져 12일부터 33개 종목 진행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전 개막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창군이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사진=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전 개막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창군이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대형 홍보탑이 세워지고, 거리 곳곳에 환영 가로기를 내걸어 환영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주민들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1일 고창군에 따르면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전'이 지난 주말 방장산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 종목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면서 본격적인 대회 시작을 알렸다.

이번주에는 5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태권도가, 6일에는 야구와 사이클이, 7일에는 롤러 경기가 진행된다. 이어 도민체전이 본격 개막하는 12일부터는 공설운동장과 군립체육관을 비롯해 각 읍·면의 경기장에서 33개 종목이 진행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대회의 완벽한 운영은 물론,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가을이벤트

롯데웰푸드 한정판 과자 증정

고창군이 1일부터 고창사랑기부제 10만원 이상 기부자 선착순 130명에게 3만원 상당의 고창 고구마 과자를 추가 답례품으로 증정한다.

이번 이벤트는 고창고구마를 활용한 롯데웰푸드의 시즌 한정판 고구마 과자 출시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품 겉포장에는 '고-참(창) 꿀맛이구마'라는 문구와 함께 고창 고인돌·갯벌·판소리 등 유네스코 등재 유산 이미지를 담아 지역 홍보를 강화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구마를 활용한 신제품 출시를 통해 지역 농업을 홍보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9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 멸종위기 '청다리도요사촌' 선정

고창군은 9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로 멸종위기 철새인 '청다리도요사촌(학명 Nordmann's greenshank)'을 선정하고, 철새 보호에 대한 군민과 방문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이어간다.

청다리도요사촌은 청다리도요와 닮았지만 전 세계에 약 500~1,300여 마리만 남아 있는 희귀종이다. 국내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EN)' 으로 철저한 보호가 필요한 새이다.

이 새는 러시아 북동부 캄차카반도 인근에서 번식해 동아시아 연안을 따라 남하한 뒤 동남아시아에서 겨울을 난다. 긴 이동 과정에서 고창갯벌은 풍부한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중간 기착지의 역할을 한다.

고창갯벌에서는 2022년 빅버드레이스 대회에서 최초 관찰된 이래로 매년 가을 1~2마리의 청다리도요사촌이 찾아와 전국의 탐조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순필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고창갯벌은 청다리도요사촌을 비롯한 멸종위기 철새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중요한 서식지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 활동을 통해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지평선축제, 체험프로그램 사전 접수

15일까지 가족오락관 등 일부 사전 신청 받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늘부터 15일까지 지평선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전 신청은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김제시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를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준비됐다.

사전 접수 프로그램은 △지평선 싸리콩이게임(국내 대항전) △지평선 종이비거 날리기 △지평선 한가위 가족오락관 △지평선 소원연 한마당 △지평선 캐릭터 모자이크 만들기 △지평선 가족요리경연대회 △지평선 김밥 만들자 등이며, 프로그램별로 금 1돈을 비롯해 풍성한 상품을 마련해 참여자들에게 한층 더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지평선축제는 추석 연휴에 개최되는 만큼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한가위 가족오락관, 싸리콩이 대박 터트리기, 가족요리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현장 이벤트를 준비해, 오랜만에 함께한 가족들에게 오랜 기간 기억될 소중한 추억과 감동을 선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시장은 "지평선 싸리콩이게임과 종이비거 날리기 등 이번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은 물론,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콘텐츠를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고, 축제 현장에서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소상공인 대상 노쇼 '주의 당부'

"사기 수법 지능화 경각심 필요"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최근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직원 사칭 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시청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한 지역 업체에 수의계약을 빌미로 접근해서 "보건소에 긴급 납품해야 한다"며 의료보조용 산소발생기 20대를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고, "차액 6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유혹했다.

하지만 시청 방문 제안에는 '출장·회의'를 이유로 회피했다.

업체가 이상히 여겨 직접 시청에 확인하면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하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사기 방지 팝업 안내문 게시 △소상공인협회 회원들에게 문자 발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는 만큼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시청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KTCS, AI시대 디지털헬스케어 체험교실 '호응'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사회전반에 걸친 빠른 디지털전환 및 AI시대를 맞이하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어 화제다.

2025 교육부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주)KTCS와 협업해 운영 중인 김제시 '디지털헬스케어 체험교실'은 단순히 키오스크 기기 사용법이나 스마트폰교육 등을 넘어 고령의 지역주민의 인구특성을 반영, 디지털문화를 건강과 접목한 체험형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으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스마트폰을 활용한 건강 앱 사용법, 혈압·혈당 측정 등 간단한 건강 체크, 웨어러블 기기 체험 등 실생활에 밀접한 디지털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현장에서는 ㈜KTCS 디지털 배움터 전문 강사들이 1:1 맞춤 지도를 통해 고령자들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체험교실은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디지털 AI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6.25참전용사 화랑무공훈장 전수

강원도 고성지구 전투 참여 故 조은동 병장 유족에 전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일 6.25 전쟁에 참전해 무공을 세운 故조은동 병장 유족(조카 조윤철)에게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화랑무공훈장과 훈장증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故 조은동 병장은 6·25 전쟁 당시 육군 제5사단 35연대 소속 분대장으로서 1951년 7월 2일부터 1952년 7월 16일까지 강원도 고성지구 전투에 참여해 탁월한 전공을 세웠다. 이에 따라 1952년 9월 1일과 1954년 10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화랑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당시 치열한 전투 상황으로 인해 실물 훈장과 증서를 전달받지 못한 채 1952년 전사했다.

이번 무공훈장 전수는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추진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으로 6.25 전쟁 당시 급박한 전쟁 상황으로 인해 훈장을 받지 못한 숨은 영웅을 찾아 국가 차원의 예우를 위해 마련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덕분에 지금의 발전된 대한민국과 김제시가 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는 보훈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 진서면 내소사 힐링캠프, 착한가게 가입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 힐링캠프가 '착한가게'에 가입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따뜻한 행보를 시작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일정금액(3만원)을 기부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실천 캠페인으로 진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담당하는 복지허브화 정기기탁 방식이다.

내소사 힐링캠프는 이번 정기기탁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나눔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현판식은 진서면사무소 관계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장문수 내소사 힐링캠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착한가게 현판 부착과 함께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장문수 대표는 "지역과 함께 숨 쉬는 공간으로서 작지만 꾸준한 나눔을 통해 진서면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싶었고 늦둥이 아들에게 이웃사랑을 나눔 실천으로 보여주고 싶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경곤 진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지역 내 착한가게 가입이 늘어날수록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더 많은 희망을 전할 수 있다"며 "내소사 힐링캠프의 따뜻한 참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전주기전대학교 RISE사업단 부안군민 대상 단기특강 성료

전주기전대학교 RISE사업단(단장 조덕현)은 지난달 28일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운영한 J-커뮤니티 캠퍼스 단기특강 '내 손으로 빚는 건강'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지역 농산물과 전통 발효 기술을 접목해 식이치유와 생활 창업 가능성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 과정은 발효식품 이해와 오디 요거트 제작, 발효미생물·식초 제조(콤부차 실습), 전통장·소금 발효(누룩소금 제작), 장류 활용법 및 현장 견학(보리고추장), 평가·수료 및 자격시험 연계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전주기전대 부안캠퍼스(화동치유농장)에서 진행됐다.

특강을 통해 부안 농산물 가치 재발견, 전통 발효 기술 전수, 지역 창업 역량 강화, 현장 중심 실습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성과가 도출됐다.

군 관계자는 "부안의 농업·교육·치유산업을 아우르는 소중한 출발점이 됐다"며 "부안이 치유농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 생수 나눔 봉사 유공 군민 공로패 수여

폭염 속 물품 지원 봉사자 등 감사한 마음 전해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1일 부안군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9월 공감의 날 행사에서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유공 군민들에게 권익현 부안군수 공로패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번 수여식은 부안군지역발전연합회(회장 전용호)의 생수 기탁 및 전북 14개 시군 폭염 대비 안전 물품 지원을 통해 더위에 지친 군민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원한 얼음물 및 부채 등을 배부한 사회단체 회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권익현 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먼저 손을 내밀어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유공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군에서도 군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폭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청년ON 챌린지 통한 지역 홍보 '눈길'

'인생샷 여행지 추천' 최우수상

고창군이 청년 친화적 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2025년 고창청년ON 인스타그램 챌린지'시상식이 1일 열렸다.

공모전은 고창군 청년(18~45세)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진행됐으며, '고창에서의 청년활동과 일상', '지역명소' 등을 주제로 한 창의적 콘텐츠를 모집했다.

심사 결과, '인생샷 건지는 여름 고창 여행지 추천'을 출품한 이연경씨가 최우수상(고창사랑상품권 50만원)을 수상했다.

우수상(20만원)에는 '고창의 재발견, 청년들이 바라보는 풍경(송진웅)', '청년이 직접 추천하는 가봐야 할 고창 명소(박채빈)'이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10만원)에는 '넌 좋겠다, 고창에 살아서(김이화)', '춤추는 빛의 고창, 청년의 발걸음(최가연)', '청년의 눈으로 담은 고창의 자연(조수빈)'이 선정됐다.

황민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이번 챌린지 공모전은 청년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청년 친화도시로서 고창의 가치를 널리 알린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완주군, 2025 일자리박람회 4일 개최

산단 입주·예정 100개 기업 참가
구직자에 채용 기회 제공
취업특강·입사 컨설팅 등 진행

완주군이 오는 4일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2025 완주군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완주산단 입주기업과 입주 예정기업 등 100개 기업이 참여해 구인 기업에는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와 채용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는 채용설명회와 취업특강, 채용관, 입사상담관 등이 있으며 채용설명회는 ㈜골드밴, 일진하이솔루스 입주 예정인 ㈜BTE,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4개 기업이 참여해 기업별 채용 정보를 안내한다.

특히 취업특강&토크콘서트에서는 김대호 전 MBC 아나운서가 '기업이 원하는 우수 인재 되기'를 주제로 강연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입사상담관에서는 채용예정 기업인 ㈜정석케미칼, ㈜BTE, 일진하이솔루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새만금개발공사, 육군부사관, (재)완주문화재단이 참여해 입사 관련한 심층 상담 및 전형별 컨설팅을 진행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일자리박람회가 구직자와 기업에게 실적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인·구직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고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박람회는 구직자는 사전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행사 당일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발효관광재단-청암대, 웰니스관광 활성 협약

산학 협력 관광 실무형 인재 양성
발효문화 기반 콘텐츠 공동 개발

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윤숙)과 순천 청암대학교 웰니스문화관광학과(학과장 오기훈)가 지난달 29일 순창발효관광재단에서 순창형 농촌·웰니스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순창의 고유한 발효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농촌관광과 웰니스 관광의 융합을 통해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창발효관광재단과 순천 청암대학교 웰니스문화관광학과가 지난달 29일 순창형 농촌·웰니스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순창군>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사랑 동행순창 홍보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및 참여 확산 △웰니스·문화·관광 분야 산학협력 강화 △순창 발효문화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 등 4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청암대 웰니스문화관광학과의 전문 인력과 순창발효관광재단의 현장 노하우를 결합해 실무형 인재 양성과 현장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관광 전문가를 양성하고, 순창지역의 독특한 발효문화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도 공동 노력할 예정이다.

대표는 "청암대학교와의 협력은 순창의 발효문화와 웰니스 관광자원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군은 그동안 고추장을 비롯한 전통 발효문화를 바탕으로 농촌관광과 웰니스 관광을 적극 육성해왔으며, 특히 쉴랜드를 중심으로 한 힐링 관광과 발효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사랑상품권, 할인율 15%로 대폭 상향

이달부터 320억 규모 발행
월 구매한도 70만원…지류 30만원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남원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32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이 발행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며, 기존 10%였던 할인율이 15%까지 확대돼 시민들의 구매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매 한도는 지류와 모바일을 합산해 월 최대 70만 원까지 가능하며, 이 중 지류 상품권은 월 30만 원까지만 허용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은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특히 할인율이 15%로 상향된 만큼 부정유통 없는 건전한 사용 문화 정착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화산면 '30년 숙원' 용수로 현안 해결 물꼬

완주군 화산면 용수·하용·번대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용수로 현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농업용수 부족 문제 △집중호우 시 낙엽·토사 유입으로 인한 수로관 막힘 △정기적인 청소 및 관리 필요성을 호소하며, 농사 포기까지 속출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화산면 종리(궁평 뜰) 일원은 궁평1-2호 용수지선 일부 구간의 역구배와 번대천 취입보 파손으로 인한 취수 기능 상실로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컸던 지역이다.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지난달 29일 화산면 용수로 현안 해결을 위함 간담회 자리를 마련,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사진=완주군의회>

이에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군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달 29일 군청 4층 회의실에서 유희태 완주군수,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관계 부서 공무원, 마을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민들과 함께 농업용수 확보 및 수로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30여 년간 이어져 온 지역의 숙원 민원 해결에 본격적인 물꼬를 튼 것이다.

이번 검토 결과, 경천저수지 상류부의 급수용량이 충분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용수로 구배 재조정 ▲번대천 취입보 기능 개선을 통한 시설 보강으로 원활한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재천 부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이 30년 넘게 해결을 기다려 온 민원을 실질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 역시 수로관 보강과 정기적인 유지관리 방안 등을 신속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는 1일 시청에서 제11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사진=남원시>

남원시, 제11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대표·실무협의체 56명 위촉
민관 협력 복지 거버넌스 가동

남원시는 지난 1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제11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표협의체 위원 26명과 실무협의체 위원 30명이 참석해 민관 협력 복지 거버넌스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위촉식에서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 전달이 이뤄졌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남원시는 이번 위촉식을 통해 기관단체·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복지 증진과 복지안전망을 강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의지를 다졌다. 또한, 위원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민관 협치 모델을 구현,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복지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산단 '한낮의 문화식탁' 점심시간 문화로 활기

산단 정주형 문화복지 모델 구축
향후 기업별 맞춤 확대 운영 계획

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문화프로그램 '한낮의 문화식탁' 두 번째 무대가 지난달 28일 완주산업단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낮의 문화식탁'은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점심시간 동안 도시락과 함께 공연을 즐기며 짧지만 특별한 문화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된 테이블형 문화 향유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점심시간을 넘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완주형 문화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최하고, 완주군과 완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정주유도형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됐다.

문화 접근성이 낮은 산업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형 문화배달 프로그램으로, 완주에서는 '한낮의 문화식탁'을 통해 정주형 문화 향유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두 번째 무대는 완주 산업단지 내 ㈜비나텍 1층 로비에서 열렸다. 현장에는 재즈밴드 '홍지형 밴드'와 '로이 재즈 트리오'가 출연해 감미로운 선율을 선사했으며, 참여한 직원들은 준비된 도시락을 즐기며 박수와 호응으로 활기찬 점심시간을 보냈다.

완주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완주산단 내 다양한 기업과 협력해 '한낮의 문화식탁'을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별 수요에 따라 일정과 공연 구성 역시 유연하게 조정된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돌입

3개월간 체납세 징수 총력
압류 물품 전북도청 전시·공매

남원시는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 확충을 위해 '2025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기간은 이달 1일에서 11월 30일까지로 3개월간 부시장을 단장으로 재정과-읍·면·동 합동으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고액·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신탁재산과 출자금 등에 대한 압류를 통한 적극적 징수방법을 모색한다. 사전에 체납안내문, 부동산·채권 압류예고서, 영치예고문 등을 우편송달과 모바일 전자고지를 병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징수를 추진한다.

지난 상반기 일제정리 기간 동안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50여 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압류된 물품은 오는 3일까지 전북도청 1층 전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은 자산관리공사 전자공매시스템 온비드(Onbid)에서 진행된다.

최경식 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개별공시지가 열람·공고…의견 접수

22일까지 의견제출 기간 운영

순창군은 2025년도 수시분(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9월 1일 열람·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62필지로, 군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과와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realtyprice.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이달 22일까지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작성된 의견서를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재검증과 심의를 거쳐 10월 22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0월 30일에 결정·공시해 확정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순창군, 법원공탁금 압류 등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

순창군이 지방세 체납자들의 조세채권 확보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법원공탁금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에 나선다.

이에, 군은 법원에 체납자들의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했으며, 해당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분쟁이나 부동산 경매 진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제공, 보관 등의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이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군은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체납자의 공탁 잔액과 재판 종결 여부를 확인한 후, 압류 채권 권리 분석을 통해 배당 가능 여부를 살펴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체납된 지방세는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체납 여부 조회 및 기타 문의가 있을 경우 순창군청 징수팀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 '리틀와푸족' 참가자 모집

완주군이 제13회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를 앞두고 대표 체험 프로그램인 '리틀와푸족' 참가자를 모집한다.

'리틀와푸족'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현장에서 하루 4회(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오후 4시 30분) 진행된다. 회당 4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며 원시시대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약 1시간 동안 △뗀석기 만들기 △사냥연습 △움집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이어지며, 마지막에는 '리틀와푸족 임명식'을 통해 성취감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아이들의 모험심과 도전정신, 협동심을 기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는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사전접수는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축제 홈페이지(wanjufestival.kr/main)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추진위원회(063-290-3978)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로 제13회를 맞는 완주 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는 '완주에서 본능을 깨워라!와 일드한 액션, 거침없는 미식여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된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공공도서관 '독서의 달' 9월 전시·공연·체험 '풍성'

남원시공공도서관(어울림·시립·어린이청소년)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책 읽는 즐거움과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울림도서관에서는 △'치킨래빗' 영화상영(20일), △김경미 작가와의 만남(27일)을, 남원시립도서관에서는 △'매직 저글링' 공연(20일), △'테라리움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13일)을 준비했으며,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동화책 인형 만들기(14일), △북&아로마 테라피(20일)가 운영된다.

또한 3개 도서관에서는 공통으로 원화전시와 '연체 지우개' 이벤트를 진행하여, 연체로 대출이 제한된 이용자들이 다시 도서를 빌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9월 2일부터 남원시공공도서관 홈페이지(namwon.go.kr/lib)를 통해 각 프로그램을 신청 할 수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독서의 달을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한만큼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다채롭고 풍요로운 9월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D-5, 대전 등 인근 도시서 홍보 펼쳐

무주반딧불축제 홍보전이 뜨겁다. 무주군에 따르면 대전 등 인근 도시에서 기동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대전역과 대전복합터미널에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날 기동 홍보에는 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 대의원 20여 명이 함께 했으며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 여행,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를 알리는 어깨띠를 두르고 안내 전단을 배포하며 축제를 홍보했다.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 박찬주 위원장은 "축제 개막을 앞두고 보다 적극적으로 반딧불축제를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라며 "올해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임시 시설물 설치는 최대한 자제하고 공공시설물을 활용하기로 하는 등 환경축제의 진정성을 살리는 데 주력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 참여 확대와 교통 문제 개선 등 분야에서도 세심한 노력을 쏟고 있다"라고 말했다.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는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무주군 일원(등나무운동장, 지남공원, 남대천변 등)에서 개최된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유치 총력

대응 전담 TF팀 구성
기본소득 모델 구체화 등

장수군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 실현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군 차원의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등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공모해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훈식 장수군수와 군 관계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예산과와 농생명정책과에 잇달아 방문해 '농촌기본소득' 추진 당위성과 강한 추진 의지를 설명했고 경기도 연천군에 농업인 수당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경기도청 관계자를 만나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장수군은 이정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장수군 기본소득 TF팀'을 신설했고 TF팀은 군 농산업정책과와 기획조정실 등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핵심 부서와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TF팀에서는 장수군만의 기본소득 추진 방향과 재원 마련 방안은 물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전 과정을 전담하며 주요 역할은 △시범사업 선정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원 확보 방안 검토 △기본소득 모델 구체화 등이다.

장수군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 실현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군 차원의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등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진=장수군>

특히 TF팀은 정부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수군만의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해 시범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농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장수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핵심 정책이다"며 "장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해 '농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최적의 기반을 갖춘 준비된 지역이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장수군 기본소득 TF팀'을 중심으로 행정과 전 군민의 역량을 모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수군은 기초자치단체의 존립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정부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소방서, 고향사랑기부금 1,150만원 기탁

110명 직원들 뜻 모아 기부

무주소방서가 지난 1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150만 원을 기탁했다. 기부금은 무주소방서 직원 110명이 뜻을 모은 것으로 지난해(750만 원)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장수 서장은 "무주를 아끼고 지키겠다는 무주소방서 직원들 모두의 마음을 담았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큰 사랑이 돼서 무주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또한 "365일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무주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군민에게 언제나 따뜻하고 믿음직한 119가 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 추진

임실군이 지난달 29일 성수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타로카드를 활용한 집단 상담 및 진로 직업 체험 활동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수초·중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 가치관을 바탕으로 조기에 진로 의식을 형성하고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진로 직업 체험 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진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에서 군은 청소년들에게'타로 심리 상담사'라는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직접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군은 청소년들에게 타로 심리 상담사의 직업적 특성과 역할, 요구되는 역량, 진입 과정 등에 대한 수업 후 관련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푸름꿈작은도서관, '마술사 최현우' 초청 강연

진안푸른꿈작은도서관은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과 함께 진안군민을 대상으로 "마술사 최현우의 편견을 깨는 마술 같은 3가지 이야기"강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진안문화의 집 2층 마이홀에서 개최되며 국내 유명 마술사 최현우가 동기부여, 성공스토리, 창의성, 독창성, 차별성 등의 주제로 자신의 경험과 마술을 접목하여 학생들과 군민들에게 꿈을 현실로 이루는 방법을 전달한다.

최현우 마술사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낸 성공 스토리를 생생한 마술과 함께 공유하며 참가자들에게 큰 영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진안푸른꿈작은도서관은 이번 행사를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진로 동기부여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했다.

마술이라는 예술 장르는 상상력과 창의적 표현력 증진에 도움을 주며, 즐거운 강연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인 학교생활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홍삼 유관기관 조직개선 위한 교두보 마련

진안홍삼 유관기관 통합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진안군은 1일 군청 상황실에서 '진안홍삼 유관기관 조직개선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진안홍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그간 각각 운영되던 홍삼연구소와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의 협력·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중복 기능을 최소화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 수행기관인 ㈜마인드맵 김미희 대표가 △홍삼산업 현황진단 △기관 통합 필요성 및 기대효과 △통합방안(법인, 인력, 인사, 조직구조) △단계별 실행전략 및 정책제언 순으로 발표했다.

특히 보고회에서는 홍삼산업 관련 기관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일원화된 홍삼산업 육성 및 진흥기능의 강화, 효과적인 재정 효율성 확보, 지역 주민 대상 인지도 및 체감도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안군은 이번 최종보고회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 및 전문가, 지역사회 의견을 종합한 향후 통합 추진 전략을 마련 후 조직·인력·운영체계 전환 등 통합 조직의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을 실행할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연구용역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조직의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전략적인 운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관 통합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홍삼축제 먹거리 사전품평회 개최

12개 음식 부스 참여

진안군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5 진안홍삼축제'의 먹거리 부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사전 품평회를 가졌다.

사전품평회는 지난달 29일 산약초타운에서 열렸으며 축제 현장에서 선보일 다양한 먹거리 부스를 사전에 점검하고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특색있고 품질 높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된 12개의 음식 참여 부스에서 홍삼을 활용한 음식 등 다양한 메뉴들로 품평회를 준비됐다.

음식 전문가, 축제 추진위원회, 실무추진단, 군의원 등으로 구성된 8명의 평가위원들은 위생관리, 맛, 가격의 적정성, 메뉴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먹거리를 시식하면서 지역 특색, 품질, 포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개선사항을 참여 부스들에게 제시했다.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장은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먹거리야말로 축제의 중요한 성공 요소"라며 "이번 품평회를 통해 검증된 우수 먹거리만을 선별·운영하여 진안홍삼축제를 찾는 모든 분들이 즐겁고 안전한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2025년 새내기 공무원 임용

인원 충원으로 신속 행정서비스 제공 기대

무주군은 1일 새내기 공무원 25명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번에 임용된 공무원은 △ 행정 14명 △ 세무 1명 △ 공업 1명 △ 녹지 1명 △ 보건 2명 △ 시설 5명으로 총 6개 직렬 25명이다.

이들은 무주군청 본청, 직속 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돼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대민 행정을 수행하게 된다.

무주군은 이번 임용으로 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해소할 수 있게 돼 군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일 열린 무주군민의집에서 개최된 임용식에서 새내기 공무원들은 복무선서를 통해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청렴하며 소통하는 공직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공무원으로서 친절과 공정, 비밀엄수, 청렴, 품위 유지의 윤리적 의무를 지키며 군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라며 "여러분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면서 항상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공직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통합문화이용권 찾아가는 설명회

임실군이 전북문화관광재단과 함께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문화누리카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5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찾아가는 설명회'를 지난달 29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문화관광재단 주관으로 읍면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통합문화이용권 활성화를 위해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참석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4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 등 관련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읍·면별 발급률 및 이용률 제고 방안 △지역 주관처 기획사업 안내 △하반기 실적 제고를 위한 홍보 전략 △오프라인 홍보 장소 추천 의견 △전년도 대비 지역 실적 분석 등이 공유됐다.

또한, 그동안 활용도가 낮은 읍·면별 이용률의 원인을 분석하고, 주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누리카드를 접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지역 내 공연장·체육시설·관광지 등 다양한 인프라와 연계하여 문화누리카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2025년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9월 26일까지 접수 학년당 1회 100만원 지원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관내 주소를 둔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2025년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5. 9. 1.)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관내 중고등학교 모두 졸업 시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주소가 있으면 가능)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인 대학생이다.

지원금액은 학년당 1회 100만원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10월 말 지급 예정이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진안군청 가족행복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진안군의 역량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가족센터, 청소년 이차전지 진로설계 교육 추진

진안군가족센터(센터장 박주철/이하 센터)는 지난달 30일 도내 3개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및 탄소중립 순환경제 협회와 손잡고, 지역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진로설계를 위한 이차전지 이해증진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지식과 진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기 주도적 진로 탐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앞서 센터는 전주비전대학교, 군장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북탄소중립순환경제협회와 이차전지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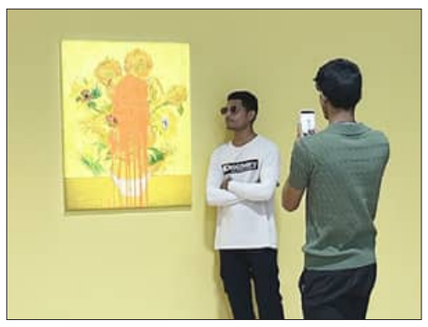
이로써 지역 청소년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실제 산업 현장과 연계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시스템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교육 기관이 힘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교육진행 과정 또한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이차전지 산업의 전망과 진로에 대한 특강을 통해 청소년들은 미래 산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다양한 직업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특강에 이어서는 △이차전지 보조배터리 제작 실습 △제조설비 운영 실습 △VR 체험을 실시해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진안=전길빈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9월 2일 화요일



완주군, 네팔 출신 근로자 41명과 '완주알기' 체험·환경정화 봉사

완주외국인지원센터가 지난달 31일, 구이면 일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네팔 출신 근로자 41명이 참여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안덕건강힐링체험마을,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등을 탐방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했다.

이어 구이저수지 둘레길에서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스스로 확인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문화탐방을 넘어 봉사활동을 결합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이 '손님'이 아닌 지역을 함께 가꾸는 구성원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네팔 출신 한 근로자는 "일하느라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체험으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았다"며 "둘레길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 의미 있었고, 완주에 외국인지원센터가 생겨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 감사하고, 앞으로 진행될 한국어 교육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강태창 도의원, 희망풍차 결연세대에 생활 물품 전달

군산시협의회 봉사원과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이 지난달 11일 군산시 나운동에서 군산시협의회(회장 이현숙) 봉사원들과 함께 희망풍차 결연세대를 방문해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백미, 선풍기, 건강기능식품 등 생활 안정에 필요한 물품이 지원됐다. 지원 대상은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결연세대로 강 의원은 적십자 봉사원들과 함께 직접 가정을 찾아 위문과 격려를 전했다.

또한 강 의원은 가정 방문 후 봉사원들과 만나 활동 과정을 살피고, 꾸준히 헌신해온 적십자 봉사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격려의 뜻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태창 의원은 "취약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생활 속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은행 노동조합, 완주 장애인보호작업장에 400만원 기탁

장애인 근로복지 향상 지원

전북은행 노동조합이 1일 근로장애인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생강골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지정기탁금 4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최광호 완주군의원, 정원호 전북은행 노조위원장, 김상곤 완주군 공무직 노조위원장, 강경민 생강골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이 참석했다.

생강골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장애인 근로자 13명이 견과류 가공, 제품 소포장 등 생산활동과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후원으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과 자립을 지원받게 됐다.

정원호 노조위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전북은행 노동조합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작은 도움이 장애인분들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과 자립 지원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이백면, 올해 첫 벼 수확 풍년의 시작 알려

남원시 이백면 초동마을 주민이 올해 첫 벼를 수확했다. 지난 5월에 이앙한 벼를 약 100일간 정성껏 키워 지난달 28일 첫 수확의 기쁨을 누렸다.

해담벼는 밥맛이 뛰어나고 도정률이 높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종이다. 특히 병해에 강하고 생육이 빠른 특성이 있어 조기 수확이 가능하다.

초동마을 이장은 "올해 날씨가 좋아 벼 생육이 순조로웠고, 해담벼 품종 덕분에 첫 수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해 지역 농업에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황도연 이백면장은 "첫 벼 수확은 지역 농업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장수군지사협, 2차 복지심화대학 실시

장수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는 2025 지역복지현안사업의 일환으로 '장수군 복지심화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7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총 9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복지심화대학 2차시 교육은 지난달 28일에 장수한누리영화관에서 소진예방과 사기 진작을 위한 교육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독 개인의 삶에 집중하는 개인주의적 새태의 흐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영화 "좀비딸"을 관람하였다.

이 영화를 통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사회적으로 또는 일상의 관계속에서도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다시한번 재차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최진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진안군협의회, '치매안심이웃플러스' 봉사활동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진안군 협의회가 진안군 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7월 중순부터 6차례에 걸쳐 진행한 치매안심이웃플러스 봉사활동을 지난달 29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아로마 마사지, 천연 샴푸 만들기, 아로마 향기 체험, 오일 목걸이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회당 20명씩 총 120명의 어르신이 참여했으며, 치매 인식 개선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등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수칙을 알리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소방서,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안전기원제

임실소방서(서장 김상곤)는 지난달 29일 임실소방서 중정에서 '의용소방대 다기능순찰차'의 안전한 운행과 성공적인 활용을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임실소방서장을 비롯해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차량 무사고와 지역 안전망 강화를 기원했다.

이번에 임실소방서에 배치된 다기능순찰차에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응급처치가방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차량용 냉장고 등 다양한 대응 장비를 탑재했다.

해당 차량은 구급차 도착 전 초기 응급처치를 지원하고 산불 예방순찰, 폭염 취약계층 돌봄, 주민안전교육, 생활안전 활동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을 통해 골든타임 확보와 회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전주사랑모아봉사단, 버스킹 수익금 100만원 기부

전주사랑모아봉사단(단장 이춘우)은 1일 전주시장실을 찾아 단원들이 버스킹 공연을 통해 모은 수익금 100만 원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했다.

이날 기부된 성금은 단원들이 그동안 전주 곳곳에서 펼친 버스킹공연 수익금 전액으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주사랑모아봉사단은 지난 2012년 창단 이래 올해로 13년째 꾸준히 버스킹 공연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다. 7명의 단원들은 생업 틈틈이 시간을 내어 거리공연을 펼치며, 공연 수익 전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이춘우 단장은 "단원들이 각자의 재능으로 이웃과 소통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올해는 폭염 속에서도 공연을 강행하며 모은 수익금이라 더욱 특별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소민 기자

[인사] 새만금개발청 인사 (25.9.1.일자)

△**개발전략국 기업지원단장**
과학기술서기관 박주환

〈一事一言〉

우리는 로봇 신입사원 시대를 제대로 대비하고 있나?

홍종학
전 중소벤처부 장관

향후 10년 내 어느 날 아침, 당신의 옆자리에 로봇 신입사원이 앉아 커피를 건넨다. 해외의 범용 인공지능(AGI)이 당신의 팀장이 되어, 간밤에 처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늘의 업무를 지시한다.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온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범용 인공지능의 출시가 멀지 않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 앞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새로운 시대의 규칙을 만드는 '설계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만든 세상에 그저 비싼 이용료를 내는 '사용자'로 남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AI 국가'와 'AI 강국'의 갈림길이다.

학생들은 최신형 계산기를 사용하는 시대에, '최신 AI를 이용한 주판 사용법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발상. 이것이 지금의 'AI 교과서' 논쟁의 본질이다. AI가 인간의 계산, 암기, 정보 검색 능력을 압도하는 시대가 왔는데, 여전히 수능 문제풀이라는 '주판알 셈법'은 그대로 둔 채 'AI'라는 껍데기만 씌우려 한다.

이런 씁쓸한 코미디는 'AI 강국'이 되겠다며 천문학적인 R&D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는 현실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알파고 쇼크 이후 9년, 챗GPT 등장 이후 3년이 흘렀다. AI를 선도하겠다며 각 부처에서 앞 다퉈 편성했던 그 많던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 그런데 다시 국가AI 사업이라며 대기업 위주의 콘소시엄을 선정하여 비싼 반도체 칩을 사주는 지원을 하고 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는 AI를 전기나 인터넷 같은 사회 인프라나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교양이 아닌, 소수 과학자들의 첨단 기술로만 취급했기 때문이다. AI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고위 공무원들이 그럴듯한 보고서만 보고 예산을 분배하는 '깜깜이 예산 나눠 먹기' 시스템은 이러한 잘못된 인식의 필연적 결과물일 뿐이다.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가 "모바일 퍼스트에서 AI 퍼스트 시대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한 것이 벌써 9년 전인 2016년이다. 세상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이미 AI를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낡은 시스템 위에서 'AI 교과서'나 '국가 지원 R&D' 같은 과거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제는 솔직해져야 한다. 진짜 문제는 씨앗을 뿌려도 싹이 트지 않는 민간의 혁신 생태계가 황무지나 다름없다는 점이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예산을 쏟아붓고 "왜 성과가 없냐"고 묻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

우리는 예산 시스템부터 뿌리째 바꿔야 한다. 예산 나눠먹기에만 관심이 있지,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점검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의 결산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계획서만 그럴듯하면 예산을 주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한 '사후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철저한 평가 하에 성공한 프로젝트 연구팀에는 더 큰 기회를, 실패한 프로젝트는 그 원인을 투명하게 분석하고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모험자본을 육성하고, 실패가 자산이 되는 진짜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첫째, 시스템의 설계자인 공무원과 교사부터 AI로 무장시켜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AI 교과서'가 아니라 고위 공무원과 교사를 위한 'AI 의무 교육'이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들이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육과 행정, 국방의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가능하다.

둘째, 이들을 시작으로 AI 활용 능력을 전 국민에게 전파해야 한다. 교실에서는 AI를 활용해 논리적 사고의 훈련을 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 행정에서는 AI 챗봇이 24시간 민원을 처리하며 국민의 AI 경험을 축적시켜야 한다. 모든 국민이 AI를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AI First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대학은 AI전사를 키워내는 산실이 되어야 한다. 컴퓨터공학 전문 분야뿐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AI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을 키워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면적인 대학 개혁이 필요하고, 대학에 연구자금을 대는 기부금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

넷째, AI 산업 지원은 위험을 감수하는 자본을 대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과거에 성과를 냈던 반도체나 정보 통신 연구조합처럼 민간이 산학연 협업을 할 수 있는 연구조합을 조성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AI 연구의 협업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AI 연구원부터 설립해야 한다.

다섯째, 국방을 혁신의 테스트베드로 삼아 민간의 역동성을 수혈해야 한다. 미국의 DARPA처럼 민간 최고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제2 국방연구원'을 설립해 AI 지휘통제, 드론봇 전투 등을 현실화하고, 그 성공 경험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미흡하나마 이 정도가 손쉽고 빠르게 AI 국가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일 것이다. 이런 과제는 소홀히 한 채 AI교과서를 만들고 연구비 지원하면 된다는 안일한 자세부터 혁파해야 한다. 과거의 성과없는 예산 지원 방식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 설

긴축 재정 속 빛난 성과, 국회 증액으로 완성해야

전북자치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9조 4,585억원을 확보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이 같은 역대 최대 규모 성과를 이끌어낸 것은 도정·정치권·시군이 하나로 움직인 결과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대규모 계속사업 종료로 불리한 여건이었음에도 총량을 지켜낸 것은 의미가 크다.

그러나 여기서 안도할 때가 아니다. 정부안 반영은 출발선에 불과하며 이제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과 보완을 끌어내는 치밀한 전략과 총력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정부예산안에는 새만금 개발 정상화의 신호탄이 담겼다.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 등 3대 SOC 핵심사업이 요구액 전액을 확보하며 사업의 불확실성을 털어냈다. 내부개발과 수목원 예산도 포함돼 기반시설 확충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그간 예산 부족으로 지연돼 온 새만금 프로젝트가 속도를 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 잔여 축사 매입, 환경생태용지 사업 등이 새롭게 반영된 것도 친환경 새만금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성과라 할 만하다.

미래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읽힌다.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가 반영돼 전북이 국가 AI 연구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았다. 이차전지와 수소, 특장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지원 예산도 포함돼 산업생태계 다변화의 가능성을 넓혔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전주 스포츠가치센터 등 지역 정체성과 결합된 인프라 예산이 신규 반영돼 향후 발전의 씨앗을 뿌렸다. 복지·창업·사회적경제 분야에서도 골고루 성과를 거두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체질 개선을 뒷받침할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제가 적지 않다. 신규사업 반영액은 2,445억 원에 그쳤다. 총사업비가 1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 다수 포함됐지만, 초기 배정액이 낮아 향후 진행 과정에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새만금과 미래산업 분야의 여러 과제는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 없이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전북이 요구한 사업들이 증액되도록 전방위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전북도는 이미 '도정 지휘부-정치권-실무' 삼각 공조를 통해 기재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성과를 거뒀다. 이제 그 공조를 국회 단계로 확장해야 한다. 지역구 의원들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에서 정책 질의를 통해 전북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하며 중앙 정치권과의 연대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과 타 지역 사업과의 형평성 논리를 견지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대의명분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정부안 반영은 결코 종착지가 아니다. 국회 심의라는 마지막 관문에서 전북의 전략적 대응이 빛을 발해야 한다. 도민의 기대는 단순한 숫자의 성과를 넘어 새만금의 정상화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전북이 대한민국의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처다.

▲오늘의 시

9월의 시 / 문병란

9월이 오면
해변에선 벌써
이별이 시작된다
나무들은 모두
무성한 여름을 벗고
제자리에 돌아와
호올로 선다
누군가 먼길 떠나는 준비를 하는
저녁, 가로수들은 일렬로 서서
기도를 마친 여인처럼
고개를 떨군다
울타리에 매달려
전별을 고하던 나팔꽃도
때묻은 손수건을 흔들고
플라타너스 넓은 잎들은
무성했던 여름 허영의 옷을 벗는다
후회는 이미 늦어버린 시간
먼 항구에선
벌써 이별이 시작되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
눈물에 젖는다.

시인 약력 : 1935년 전남 화순 출생. 1961년 조선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김현승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시 '가로수', '밤의 호흡', '꽃밭' 등이 추천되어 등단했다.
1990년 만족작가회의 이사, 1996년 5·18기념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고 '원탁시' 동인으로 활동했다. 전남문학상(1979), 요산문학상(1985), 한림문학상(2001) 등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문병란시집'과 '죽순밭에서>'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 '저 미치게 푸른 하늘' 등을 남겼다.
2015년 타계했다.

문화재열전

운서정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조경건축, 누정
-지정일 - 1990년 6월 30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임실군 관진로 61-20
(관촌면, 운서정)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진짜 남원추어탕 향한
남원 미꾸리 대량생산 사업 시동!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 청년 양식 창업사관학교 추진

남원은 추어탕의 고장이다. 남원추어탕의 이름은 전국 어디에서도 통용되는 추어탕의 대명사가 되었다.

남원추어탕은 본래 미꾸리로 끓였다. 미꾸리와 미꾸라지는 엄연히 다른 종이나 현재는 두 종 모두 추어탕 재료로 쓰인다. 남원은 지리적으로 섬진강의 상류에 속해 유속이 빠르고 퇴적층이 얕아 미꾸라지 보다는 탕류의 재료로 적합한 미꾸리가 많이 분포한다.

또한 지리산 자락의 서늘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연하고 맛있는 애기시래기가 많이 생산되어 자연스럽게 미꾸리와 시래기가 어우러져 추어탕이 음식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부터 요천변에 추어탕집이 운집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전국적인 브랜드인 남원추어탕이 탄생하였다.

남원시는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간 남원추어탕을 지역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먼저 추어탕의 원료를 남원에서 생산하기 위해 남원지역 추어탕의 본래 재료가 미꾸리임을 확인하고, 전국에서 소요되는 물량의 95% 이상 사용되는 중국산 미꾸라지를 대체하여 남원 미꾸리 대량생산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미꾸리 대량생산 및 실내양식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2010년 미꾸리 치어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 2016년부터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미꾸리 성어 대량생산 기술을 연구해 2021년 특허를 등록하고 기술개발을 완료하였다.

현재 남원시는 개발된 미꾸리 실내 양식기술을 토대로 관내·외에 공급할 미꾸리 대량생산을 위해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2017년 해양수산부 내수면양식단지조성사업에 공모해 사업비 70억원을 확보하여 주생면 중동리 지역에 4ha 규모의 양식단지 부지조성을 추진해 2024년 완료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56억원을 확보하여 양식단지 부지에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공유양식장 20동, 유통축양시설 1동 등을 조성중으로 2025년 10월 준공예정이다.

남원 미꾸리 양식단지는 남원 미꾸리 대량생산과 관외 인구 유입을 통한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유양식 플랫폼은 조성된 미꾸리 양식장을 임대형으로 운영해 미꾸리 양식을 위해 필요한 시설투자비를 절감하여 미꾸리 양식 창업과 관외에서 남원으로 미꾸리 양식 창업을 희망하는 전입자의 입주를 유도하여 미꾸리 양식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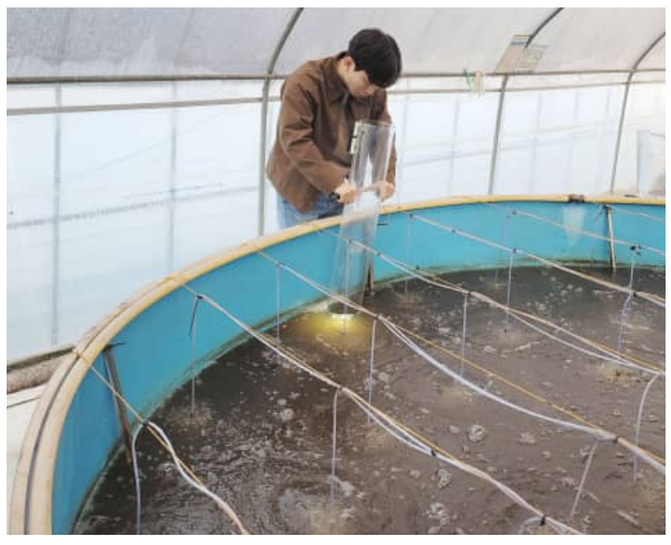
이를 위해 2025년 9월 공모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 10월경 대상자를 선정하고 미꾸리 생태, 양식현황 및 양식기술 교육등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11월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으로 지역인구 증대를 목표로 관외 입주자를 적극 모집한다.

그러나 남원시 관내의 입주수요 또한 고려하여 입주자 선정 시 전체 18동의 임대형 양식장 중 50%를 관외 입주자에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45세 이하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외 청년 신청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미꾸리 양식 및 내수면 양식 경력, 교육 수료 실적, 가족동반 전입 여부 등을 고려해 남원시의 사업목적인 미꾸리 대량생산과 관내 인구증대에 부합하도록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선발된 입주자 및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미꾸리 및 내수면 양식, 추어식품가공, 체험관광 창업 및 교육을 적극 지원하는 청년 스마트 미꾸리 양식 창업 사관학교 조성사업을 2025년부터 2029년 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100억원을 확보, 총사업비 121억원을 투입하여 미꾸리 대량 생산을 통한 공유양식 플랫폼의 성공적인 운영과 인재양성, 가공, 체험관광 등 6차산업 창업활성화로 남원지역경제 활력을 견인할 계획이다.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 가동과 함께 남원추어산업은, 남원의 대표 먹거리로 자리매김한 추어탕을 흔한 지역 먹거리에서 그치지 않고 전국 어디에도 없는 남원만의 특화 산업으로 발전시켜 타 지역이 흉내낼 수 없는 남원만의 블루오션 사업화하여 남원 경제의 근간사업으로 만들겠다는 남원시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2025년 이후 힘차게 뛰어오르기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